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8. 3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정책동향 연구부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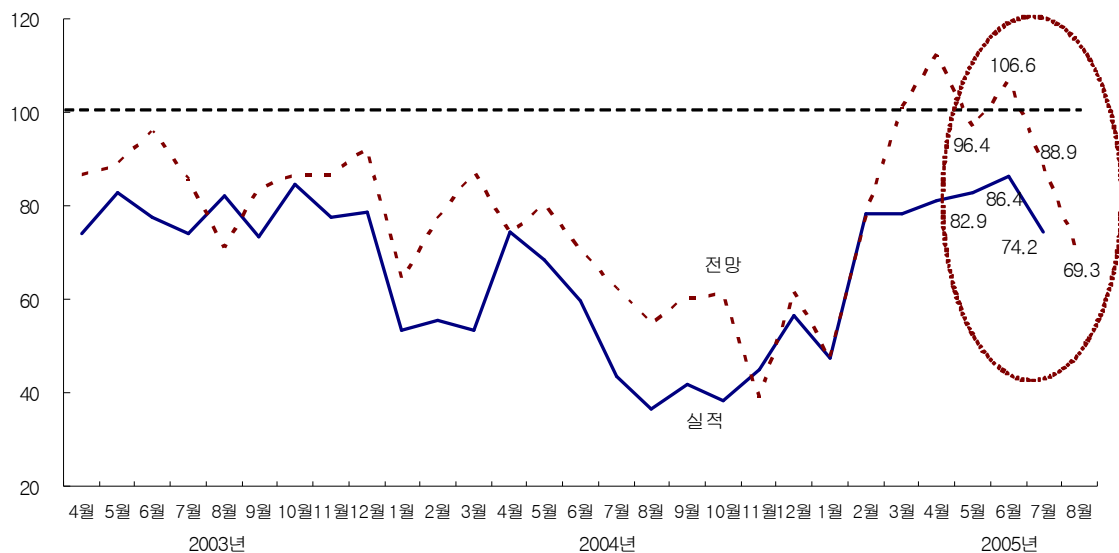
- ☐ 200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4.2를 기록함.
 - 규모별 체감경기 격차는 58.5p로 조사이후 최대치를 나타냄.
 - 대형업체는 100.0을 기록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76.5, 41.5에 불과함.
 - 지역별로도 서울업체(86.4)와 지방업체(59.8)의 체감경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8월 전망은 69.3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형업체(72.7)도 익월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함.
- ☐ 공사물량(72.9)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공종별로 보면 모든 공종에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규모별·지역별로 보면 대형업체(118.2)는 지난달에 비해 물량이 증가한 반면 중견업체(62.5)와 중소기업체(31.7)는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임.
 - 8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3.8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자금부문 역시 업체 구분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재와 인력은 수급은 원활하고 비용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수금과 자금조달 지수가 각각 59.5, 51.2를 기록하여 자금조상 상황이 매우 나쁜 상태임.

200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7월 CBSI 74.2, 체감경기 다시 하락

- 2005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4.2를 기록함.
 - 지수는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 왔으나 7월에는 12.2p 낮아짐.
 - 이는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증가한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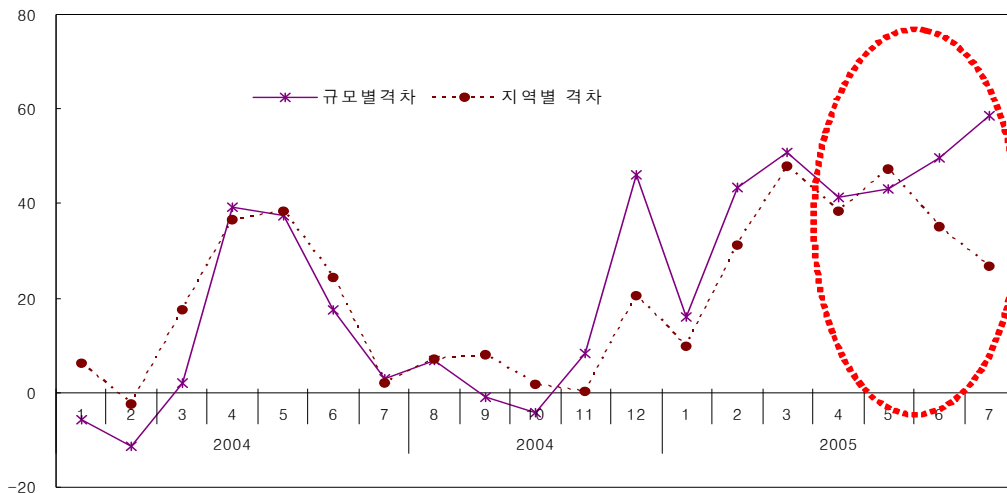
< 경기종합 BSI 추이 >



- 최근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체감지수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대형건설업의 경기 호조에 비해 중소 및 지방업체의 체감경기가 크게 낮기 때문으로 풀이됨.
 -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건설경기 양극화 현상은 7월에도 지속됨.

- 규모별 체감지수 격차는 58.5p를 기록하여 조사시작(2001년 5월)이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냄.
- 대형업체는 100.0을 기록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중견업체(76.5)와 중소기업(41.5)는 각각 14.0p, 15.9p 감소하여 체감경기가 크게 나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도 서울업체는 86.4를 기록하였으나, 지방업체는 59.8에 불과나 지역별 체감경기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격차 추이 >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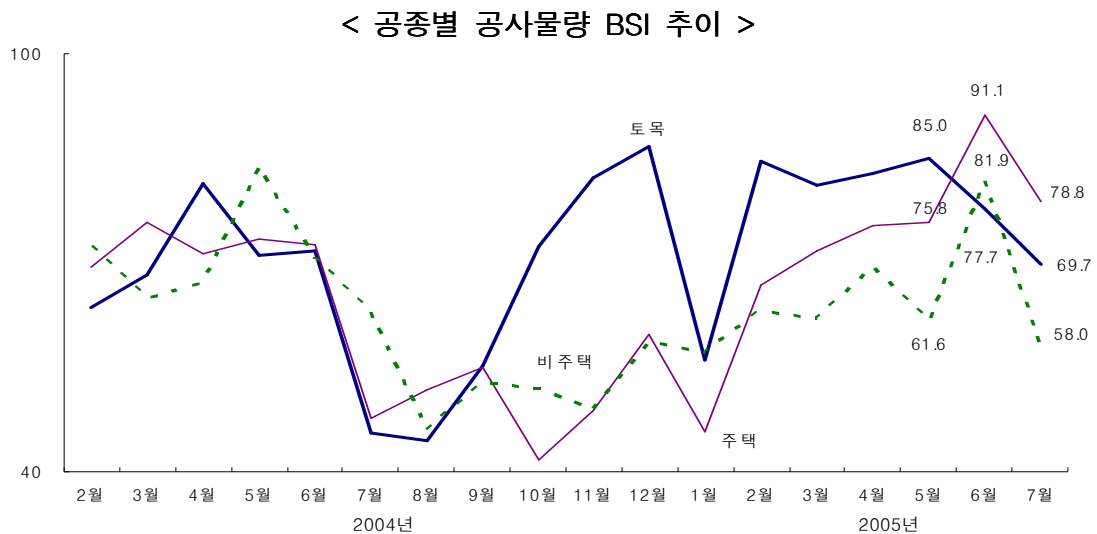
구 분		200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총 합		36.5	41.7	38.2	44.8	56.6	47.4	78.1	78.4	81.2	82.9	86.4	74.2(88.9)	69.3
규모별	대형	35.7	37.5	33.3	50.0	87.5	50.0	100.0	100.0	100.0	109.1	107.1	100.0(107.7)	72.7
	중견	44.0	48.8	43.8	42.1	38.2	56.4	74.5	81.8	81.6	71.0	90.5	76.5(92.9)	79.4
	중소	28.8	38.5	37.5	41.7	41.3	34.1	56.5	49.1	58.8	65.9	57.4	41.5(62.5)	53.7
지역별	서울	42.4	45.1	38.9	44.9	64.4	50.9	91.3	98.1	96.1	101.6	98.5	86.4(97.5)	70.6
	지방	35.2	37.1	37.2	44.8	43.8	41.2	60.0	50.4	57.7	54.4	63.6	59.8(74.5)	66.6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2005년 8월 건설경기 전망은 69.3을 기록함.
 - 익월 경기에 대한 전망은 2개월째 지수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
 - 대형업체(72.7)의 경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익월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함.

규모별 공사물량 격차, 조사이후 최대

- 공사물량지수는 72.9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¹⁾.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2.1p 하락함.



- 공사물량은 모든 공종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토목물량지수는 69.7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형업체(109.1)에 비해 중소기업체(31.7)의 물량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문(78.8)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18.2)의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 부문은 58.0을 기록하여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규모별 공사물량 격차는 조사이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냄.
 - 대형업체(118.2)는 지난달에 비해 물량이 증가한 반면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62.5, 31.7을 기록하여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체의 공사물량지수격차는 87.5p로 나타나 조사이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공사물량지수가 각각 92.7, 49.6을 기록하여, 지방업체의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조사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2.9	118.2	62.5	31.7	92.7	49.6
	전망	73.8	100.0	69.7	47.6	81.1	61.2
토목	실적	69.7	109.1	62.5	31.7	90.0	48.1
	전망	73.8	109.1	62.5	45.2	86.4	52.7
주택	실적	78.8	118.2	72.4	40.0	89.3	49.6
	전망	75.0	100.0	80.0	40.0	81.3	60.1
비주택	실적	58.0	63.6	64.5	43.9	66.4	56.6
	전망	61.3	63.6	74.2	43.9	67.6	60.3

주: 실적은 2005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8월 예측지수임.

- 8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3.8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100.0)의 경우 토목과 건축부문은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비주택부문의 감소로 인해 7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중견업체(69.7)와 중소기업체(47.6)는 공사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남.

중소업체 자금조달지수 악화

-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문에서도 업체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 공사대금수급지수는 94.0을 기록하였으며, 자금조달지수는 103.4를 기록함.
 - 대형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수급(109.1)과 자금조달(145.5) 모두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소기업체는 공사대금수급과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59.5, 51.2로 조사됨.
 - 중소기업체의 자금조달지수 악화는 향후 부도업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4.0	109.1	108.8	59.5	104.0	81.4
		전망	90.7	100.0	102.9	65.9	99.4	86.3
	자금조달	실적	103.4	145.5	105.9	51.2	122.7	76.4
		전망	94.2	118.2	102.9	56.1	105.8	78.2
인력	수급	실적	111.7	127.3	105.9	100.0	124.8	106.9
		전망	99.0	109.1	94.1	92.7	109.9	95.8
	인건비	실적	79.1	72.7	82.4	82.9	79.1	83.8
		전망	80.2	81.8	67.6	92.7	81.1	85.1
자재	수급	실적	109.5	118.2	108.8	100.0	116.9	105.5
		전망	90.6	90.9	88.2	92.9	94.0	90.0
	비용	실적	84.4	90.9	91.2	69.0	94.1	81.0
		전망	82.9	90.9	76.5	81.0	89.7	78.5

주 : 실적은 2005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8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은 수급은 원활하나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111.7)과 자재수급(109.5)은 모두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인력과 자재의 수급지수는 각각 4개월, 3개월째 원활한 상황이 지속됨.

- 인건비(79.1)와 자재비(84.4)는 여전히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됨.
- 2005년 8월에도 인력·자재의 비용이 여전히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자금사정의 경우 대형업체(118.2)와 중견업체(102.9)에 비해 중소기업체(56.1)의 자금조달상황은 매우 나쁠 것으로 전망됨.
- 인력과 자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은 원활한 것으로 보이나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됨.